고흥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심화교육 참여자 모집

사회연대경제 이해부터 사업화 전략까지, 실무 중심 교육 실시

고흥 상생일자리센터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심화교육'참여자를 모집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교육은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고흥 상생일자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연대경제 조직 설립 및 전환 등을 준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연대경제 이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사업화 전략 등 5회차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가 실질적인 설립·운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유빈 기자

보성, 행복마루 공동육아 나눔터 활기

보성군 행복마루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다양한 놀이체험 시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성 행복마루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 정보와 고민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다채로운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돌봄 공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장난감과 놀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 명현관 군수 폭염·가뭄 현장점검

해남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폭염 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2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부서별 비상근무와 함께 매일 현장점검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8일 농업 현장과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추재배 농가를 비롯해 무화과, 고구마 등 주요 작물의 생육 현황을 살펴보고, 관수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그늘막과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해 팔 걷었다

진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르신 자살 예방에 앞장선다.

센터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도읍 행정복지센터와 진도읍 26개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살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살 위험을 낮추고,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살 예방인증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를 활용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배우고,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려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익혔다. 교육 참여자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 사순문 군수 가뭄 취약지 점검

장흥군은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용수 공급이 시급한 농가를 대상으로 양수기 대여와 소방 급수 등을 지원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는 대형 관정과 하천수 등을 활용해 물을 채우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와 시설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어가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뭄과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시설 단속 나선다!

평상, 컨테이너,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컨테이너 철거 전후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여름 휴식 공간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